

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후속조치

2019.5.9(목) 14:30 이후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

- 모 두 발 언 -

2019. 5. 9.

금 융 위 원 장
최 종 구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1 인사말씀

- 안녕하십니까?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-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
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, 자본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,
그리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
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.
- 오늘 간담회는 작년 11월에 마련한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중
‘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’과 관련된
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
 - 또한, 지난 3월 발표한 「혁신금융 추진방향」을
구체화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할
금융투자업 종사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.
- 그동안 정부는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
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.
 - 가계대출 위주의 보수적 금융관행을 개선하고,
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
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여 왔습니다.
- 그 결과,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*되고,
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점차 개선**되는 등
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
* 가계부채 증가율(%) : ('13년) 5.7, ('15년) 10.9, ('17년) 8.1, ('18년) 5.8

** '17년 이후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 확대(+86조원) 등
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
기업의 혁신적 도전을 저해하는
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.
-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인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도
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·절차적 규제로 인해
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데
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10년 전 시행('09.2월)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
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
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오늘 논의 할 「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」 과
「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」 은
-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
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.
- 우리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지고
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 만큼
업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
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
- 정부는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
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
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혁신금융의 선도자라는
소명감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2 논의 과제 주요 내용

(1)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

- “차이니즈 월 규제”라고 불리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는
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
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.
- 그러나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
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
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
 - 조직·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
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
-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
차이니즈 월 규제로 인해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
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.
- 이처럼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
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
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.
-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의 기본 원칙은
규제 준수 방식에 대한 업계의 자율성을 제고하되
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것입니다.

< 과제1. “업 단위” 규제를 “정보 단위” 규제로 전환 >

- ☐ 우선,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
차이니즈 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
현행 “업 단위” 칸막이 규제 방식을
 -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
“정보 단위”별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.
- 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
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‘미공개 중요정보’와
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되는
‘고객자산 운용정보’로 정의하겠습니다.
 -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
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< 과제2.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 개선 >

- ☐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
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
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 -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
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,
 -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
필수원칙만을 제시할 것입니다.
- ☐ 인적교류 금지,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
법령에서 폐지하겠습니다.

< 과제3.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>

-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
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- 특히,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
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,
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할 것입니다.

< 과제4.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정비 >

- 차이니즈 월 규제 정비에 맞추어
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도 보완하겠습니다.
-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마련,
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 등
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.
-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시 거래를 제한하고,
조사분석자료를 제3자에게 미리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
현재 협회 자율규제를 법령에 반영하겠습니다.
-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가중하여
제재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
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
금전제재를 강화하여 규제의 억제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.

(2) 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

- 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 규제는
방금 말씀드린 차이니즈 월 규제와 함께
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.
- 빅데이터,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이
활발하게 진행중인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,
 - 금융투자업권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
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.
- 겸영·부수업무도 사전신고 등 사전적 규제로 인해
업무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- 이에,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
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 규제를
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- 우선,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
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
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.
- 현재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되어 있는 핵심업무도
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·등록을 받은 자에게는
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의 접수·전달·집행 및 확인
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
 -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
본질적 업무도 IT 기업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
재위탁과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제도 정비할 예정입니다.
-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재위탁을 원칙 허용으로 전환하고,
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
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
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
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겠습니다.
- 다만,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
촘촘한 사후감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.
- 금번 업무위탁 및 겸영·부수업무 규제 개선으로
후선업무부터 트레이딩, 자산관리 까지
다양한 분야에 핀테크가 활용되어
금융투자업의 혁신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대형사와 중·소형사간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고
전문성 있는 영역으로 특화하는 모습도 진행될 것입니다.
- 혁신기술 활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
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되어
금융소비자의 편익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
2가지 정책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
3 마무리 말씀

- 혁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인 만큼 어렵지만,
혁신에 성공하면
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, 혁신의 가능성을 알아보고
초기부터 투자하는 모험자본이 없다면
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도 꽃 피우기 어려울 것입니다.
-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
자본시장의 선도적 역할이
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.
- 정부는 금융투자업계가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주춧돌이
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오늘 논의 할 두 가지 과제에 이어
「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」,
「건전성 규제 개선방안」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.
- 특히, NCR 등 건전성 규제가 투자대상 다변화,
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
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
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
수렴하여 세부 규제를 개선하고,
- 리스크 측정 및 관리라는 건전성 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
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.
- 오늘 논의한 정책과제들은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,
향후 입법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